

무전기 수출분과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가

앞으로 우리 무전기 업계의 수출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본회 통신산업과에서는 지난달 1일 맥슨전자 등 관련업체 수출부서장 회의를 갖고 「무전기 수출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분과위는 앞으로 수출상의 애로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정부 건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업체별 수출동향, 제품개발, 바이어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상호 교환해 나감으로써 업계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분과위에서는 공정경쟁분위기 조성을 통한 업계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분과위는 해외전시회 참가, 불용자재 활용, 부품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분과위는 국제전자공업, 태광산업, 승용전자, 에어텍정보통신, 맥슨전자, 텔슨정보통신, 메이콤, 넥스트론, 우일텔콤, 제이콤, 화영산업, 메텍스, 비지테크, 아함전자, 헤드라인, 해양전자장비, 삼양무선, 삼영전자공업, 신아기업 등 19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서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모아 9월중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키로 하였다.

위성방송수신기 수출업계 실무자 회의 개최

본회 통신산업과에서는 7월 16일 홍창 등 10개사가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성방송수신기 수출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생산업체에 대해 MPEG LA(MPEG2 특허 보유업체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허료 징수업체) 및 특허보유 업체들로부터 MPEG 2 특허료 요구가 빈번해짐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ISDN 단말기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 개최

본회 통신산업과에서는 지난 7월 16일 삼성전자 등 1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ISDN 단말기 제조업체 회의를 갖고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검토중인 ‘시험인증체계 구축 방안’ 도입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시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시험인증체계 구축방안 도입

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의 긍정적 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아직 ISDN 관련 통신망의 표준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 품질인증 등은 시장원리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들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ISDN산업 종합발전방안에 관해

제3차 아시아전자전협력 회의(AEECC) 개최

한국전자전, 일본전자전, 홍콩전자전, 대만전자전 등 아시아 4대 전자전 주최자들은 앞으로 해외바이어 등을 위해 일정을 상호 연계키로 하는 등 아시아 전자산업 발전과 전자전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7월 15일 대만 타이

진흥회

활동사항

페이지에서 4개국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3차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 본회가, 일본에서 JESA, 대만은 TEEMA/CETRA, 또 홍콩에서는 홍콩무역발전국이 각각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는 본회, JESA, TEEMA/CETRA가 전자전 홍보부스를 1부스씩 상대방에 제공키로 하였으며 또한 본회와 일본 JESA는 각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바티 등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해외바이어 유치를 위한 4개국 전자전의 일정연계가 정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홍콩무역발전국의

참여로 아시아 전자전 협력체제 구축기반을 확보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차기 제4차회의는 순번에 따라 본회가 서울에서 내년 4월에 개최키로 하였다.

부품표준화작업 박차

본회 개발표준팀에서는 지난 7월 '99 자본계표준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커넥터, CATV, CRT 표준화관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이들 품목의 표준화규격서를 오는 11월까지 제정키로 하였다.

홍보등록자료의 인터넷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의개최

본회 개발표준팀에서는 등록형명데이터의 홍보 및 조회 등을 인터넷시스템으로 구축키 위해 관련업체 실무자 회의를 7월 21일 갖고 프로그램설계에 대해 논의하고 초안을 작성하였다.

통신업계 해외인증 획득에 관한 업계회의 개최

본회 통신산업과에서는 지난 7

인터넷기반 전자산업종합정보망 올해말까지 구축

본회 전산정보실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정밀한 전자산업관련 DB를 우리 회원업체 및 전자산업 관계자들에게 폭넓게 제공키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산업종합정보망을 금년 말까지 구축키로 하고 세부 준비에 착수했다.

본회는 현재 PC통신환경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산업 종합정보서비스, 즉 EIAK-INS를 인터넷환경으로 전면 전환키로하고 올해말까지 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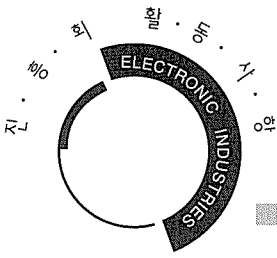
홈페이지(<http://www.eiak.org>)에 가전·정보통신산업·전자의료기기DB, 전자부품검색시스템을 추가제공하는 등 전자산업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본회는 또 홈페이지에 전자산업 유망 중소기업 우수신기술 및 부문별/품목별 시장정보, 세계 50여개국에 대한 국가정보 등을 제공해 수출입동향, 각종 경제 및 투자동향 등 전자산업 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정

보를 얻게 할 계획이다.

본회는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8개월간 Cyber 전자전시회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 전세계 전자업체가 참가하는 전시회를 개최, 웹상에서 제품전시와 구매상담활동 등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이번 사이버 전자전시회는 53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무역센터(WTCA)의 인터넷망과 연계해 국내 업체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월 29일 삼성전자 등 관련업체 실무자들이 참석하 가운데 해외 인증 획득에 관한 회의를 본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인증/규격에 대한 업체별 현황 및 애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8월중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외인증 획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우선 대기업쪽에서는 정부차원의 협상노력을 통한 지원을 요망하는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정보수집 및 인증업무 수행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각각 요청하였다.

본회에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FCC(미국전파 통신규격), UL(미국보험협회안전규격), CE(유럽연합통합인증/규격) 등 해외인증 획득에 관한 애로를 모아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가전제품 특소세 인하 올 연말까지 연장기로 결정

정부는 최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당초 예정했던 지난 7월말 종료치 않고 금년말까지 5개월 더 연장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본회가 내수시장의 침체 등 우리 가전업체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들어 금년에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이후 결정된 것으로 우리 업체는 앞으로 가전제품 판매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에어컨의 특소세는 30%에서 21%로 TV, 세탁기, 냉장고, VTR, 오디오, 전자렌지 등은 15%에서 10.5%로 각각 인하돼 왔었는데 이번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인하시율이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신개발전자부품콘테스트 및 전시회 준비에 들어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금년도 신개발전자부품콘테스트는 최우수상이 종전 산업자원부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한단계 높아진 가운데 치러진다.

본회는 지난달 관련업체 회의를 열어 부품콘테스트에 대한 시상내용 등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업체에 일정 및 시상내용이 담긴 참가안내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한편, 콘테스트에 출품돼 입상한 제품들은 같은 기간 개최되는 '99 한국전자전(KES '99)에서 별도 부스를 마련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 본회 부품산업과 오수경 대리 전화 : 565-5803(Ext.362)>



<<진흥회 7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7. 1	무전기 수출분과위원회	에어택정보통신, BG TECH, 태광산업, 맥슨전자, 국제전자, 승용전자 헤드라인	정보통신산업부
7. 6	영남권 리사이클센타 건립관련 회의	LG전자	전자산업부
7. 8	오디오분과위원회 회의		전자산업부
7. 12	CRT 표준화 회의	삼성전관, LG전자, 오리온전기	개발표준팀
7. 13	산업자원부 주최 업종별 수출회의 참석	(산업자원부)	국계부
7. 13	제3차 아시아전자전 주최자 협력회의	(대만 타이페이)	국계부
7. 14	산업기술개발자금 '99 제3차첨단분야 심의회		개발표준팀
7. 15	신개발전자부품콘테스트 구매부서장회의	현대전자산업, LG전자, 삼성전자	전자산업부
7. 15	ISDN단말기 업계 회의	삼성전자, 아이엔텔레콤, DXO텔레콤, LG정보통신, 대우통신, 기라정보통신 등 10개사	정보통신산업부
7. 15	LCD 모니터용 커넥터 표준화 회의	대우전자, 삼성전자, 현대전자, 우영, 히로세코리아, 제은전자	개발표준팀
7. 16	위성방송수신기 수출업계회의	대룡정밀, 대영전자공업, 태산전자, 동원전자, 삼성물산, 한별텔레콤, 두원테크, 삼성전기, 흥창	정보통신산업부
7. 20	산업기술개발자금지원 심의회		개발표준팀
7. 21	CATV표준화 회의		개발표준팀
7. 22	KES '99 참가업체 부스배정회의		국계부
7. 22	COMDEX FALL '99 한국관 운영위원회	중앙텔레콤, 삼창텔레콤, 한일전자, 창성전자 등 36개사	정보통신산업부
7. 22	미국전자전기기술자협회(IEEE)1394 커넥터 표준화 회의		개발표준팀
7. 27	CPU관련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면담		정보통신산업부
7. 27	등록혁명 데이터 인터넷 홍보시스템 구축 회의		개발표준팀
7. 29	디지털 TV 수출촉진 전담반 회의		전자산업부
7. 29	산업기술자금지원 사후관리 설명회		개발표준팀
7. 30	「전자산업 40년사」 중 '90년대 편집내용에 대한 토론회	(양재동 스포타임)	기획팀